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청소년의 또래의사소통, 정서문제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최 가 희**

초 록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청소년의 또래의사소통, 정서문제 각각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또래의사소통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 2010) 중1 패널의 종단자료 중 3차, 6차, 7차를 사용하여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았고, 연구 분석에는 총 1654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시간 독립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청소년의 또래의사소통과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는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긍정적인 청소년의 또래의사소통 수준과 관련되며, 이는 낮은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율이 높을수록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의 변화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의사소통이 정서문제를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서 주로 사용하던 기존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변인으로 설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또래의사소통의 매개역할을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또래의사소통을 증진하는 개입전략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속해있는 청소년들의 정서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데 있어 주요 변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KCYPS 2010, 사회경제적 지위, 또래의사소통, 정서문제

* 이 연구는 2018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임.

**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choigh@kmu.ac.kr

I. 서 론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는 1883년 미국의 사회학자 Lesler Ward가 사회 및 경제영역이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소개한 개념이며, 개인의 권력 정도, 위신,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 등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사회 속 개인의 위치라고 정의된다(Diener & Ali, 2009; 변상우, 2018에서 재인용). SES는 개인의 발달과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SES에 대한 합의된 정의 및 SES가 인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김근영, 곽금주, 2015; 변상우, 2018). 이러한 SES에 대한 합의된 정의의 부재 및 심리적 기제에 대한 연구 부족은 SES를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한계를 지어왔던 경향과 떨어뜨릴 수 없으며(Liu et al., 2004), 이에 SES를 주요변인으로 삼아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다(변상우, 2018; Bullock, Kent, Griffin & Toolis, 2018; Falconnier, 2009; Liu et al., 2004; Pope & Arthur, 2009; Twenge & Nolen-Hoeksema, 2002)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과 더불어 20세기 말부터 본격화된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기점으로 SES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사회구조 내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SES를 주요변인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추세이다(김근영, 곽금주, 2015). 현재까지 SES에 대한 연구는 우울 및 불안(김진현, 2018;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Falconnier, 2009; Falconnier & Elkin 2008; Kiviruusu, Huurre, Haukkala & Aro, 2013; Piff & Moskowitz, 2018), 적응문제(이지연, 곽금주, 2008), 대인관계(Edwards & 하영희, 2005; Greitemeyer & Sagioglou, 2018; von Soest, Wagner, Hansen & Gerstorf, 2017), 진로결정(김영혜, 안현의, 2014), 학업(봉미미, 김혜연, 신지연, 이수현, 이화숙, 2008; Gearin, Fien & Nelson, 2018), 비만(Bradshaw, Kent, Henderson & Setar, 2017; Chen & Kennedy, 2004), 영아의 뇌 발달(최영은, 최미혜, 남민지, 2013), 아동의 발달(이지연, 곽금주, 2008; 임진영, 2001; 장유경, 성지현, 2011; 최영은 외, 2013; Kao, Nayak & Doan, 2018), 신체건강(Cundiff & Matthews, 2017; Gallo, Bogart, Vranceanu & Matthews, 2005; Gallo & Matthews, 2003; von Soest, Wagner, Hansen & Gerstorf, 2017), 공격성(Greitemeyer & Sagioglou, 2018),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Miech, Caspi, Moffitt, Wright & Silva, 1999)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SES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 및 정신건강, 정서발달, 신체발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임을 발견함으로써 SES가 단순히 인구통계학적 배경이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중에서도 SES와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은 SES 수준의 차이가 적응이나 삶의 질 뿐 아니라 우울, 불안 및 여타의 심리적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회원인가설(social causation hypothesis)은 SES 수준과 정신병리의 관계를 보다 정교화하였는데, 사회원인가설에 의하면, 낮은 SES 조건에 처한 개인은 삶에서 더 많은 역경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 환경은 우울이나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원인이 된다. Wadsworth와 Achenbach(2005)는 수입에 따른 건강보험 및 관리 자원의 불균형에 주목하며, 사회원인가설의 해석범위를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SES 수준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심리적인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은 동일하나, 낮은 SES의 개인은 중간이나 높은 SES 수준에 놓여있는 개인에 비해서 치료를 받을 기회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므로 회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낮은 SES에 노출된 사람들은 높은 정신장애 유병율을 보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Wadsworth와 Achenbach(2005)는 사회원인가설의 이러한 기제에 관심을 가지고 아동을 대상으로 중단연구를 실시하였고, 낮은 SES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 및 청소년들은 불안, 우울, 신체 증상, 사고 문제, 사회적 철회, 공격성 및 품행문제, 주의력 문제 등 정서-행동문제를 더 많이 겪게 될 뿐 아니라 제한된 자원으로 인하여 증상 회복률 또한 느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가 사회원인가설을 검증하였다. Costello, Compton, Keeler and Angold(2003)는 미국 원주민 인디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자연실험연구에서 수입이 증가할수록 가난으로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자녀들의 품행문제 또한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하며 사회원인가설을 확인하였다. 이스라엘 성인을 대상으로 한 Dohrenwend et al.(1992)의 연구에서는 주요우울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 약물남용 관련 장애와 관련하여 사회원인가설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관련하여 Kiviruusu et al.(2013)은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중단연구에서 심리 자원의 변화가 SES와 증상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심리적 자원이 제한적인 경우, SES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증상 차이가 컸으나, 심리적 자원이 증

가하였을 때, SES 수준에 따른 증상의 차이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낮은 SES의 개인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iviruusu et al.(2013)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에서 심리적 자원은 매개변인일 수도 있다고 제안하며, 후속 연구에서 심리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밝힐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안에 기반하여 SES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심리적 자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SES가 심리적 자원을 통해 정신장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견은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Wadsworth와 Achenbach(2005)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가족의 SES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므로,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 순수한 사회원인효과를 검증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김근영과 박금주(2015)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SES는 과거보다 청소년의 적응을 예측하는 데 필수적인 변인이 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SES는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의 또래와의 접촉의 종류, 문제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SES가 그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조건을 발견하고 예방전략을 세우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자 하였다. Wadsworth와 Achenbach(2005)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불안, 우울, 신체 증상, 사고 문제, 사회적 철회, 공격성 및 품행문제, 주의력 문제 등 정서문제에 주목하였다. 더불어 Achenbach와 Rescorla (2001)는 청소년의 정서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서문제를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내재화 문제는 불안, 우울, 위축 및 신체증상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며, 외현화 문제는 공격성이나 파괴적인 행동을 그 특징으로 한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가 청소년의 빈곤경험, 생활시간, 애착, 부모양육행동, 인터넷 중독, 삶의 만족, 자아탄력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보고하며 그 중요성을 확인하였다(강지현, 오경자, 2011; 박원주, 이기학, 2008; 설경옥, 백상은, 이선아, 박지은, 2014; 송현주, 황순택, 2017; 이귀숙, 김현숙, 2016; 이봉주, 민원홍, 2015; 정소희, 2016; 좌현숙, 2018; 최은경, 오수성, 2006; 최태산, 김자경,

2015; 하문선, 2017). 또한 일련의 선행연구는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분리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므로(강지현, 오경자, 2009; Fanti & Henrich, 2010; Overbeek, Vollebergh, Meeus, Luijpers & Engels, 2001),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SES가 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부모의 SES와 청소년의 정서문제의 관계를 매개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또래와 형성하는 의사소통의 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은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주요변인으로 관계성을 꼽았다. 즉, 청소년이 따뜻하고 지지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수록 경험하는 행복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Conger와 Elder(1994)는 또래와의 지지적인 소통 및 수용적인 관계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불안, 우울, 자살 충동, 섭식장애 등의 문제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는 가족보다 학교나 학원에서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비중이 증가하므로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은애, 정현희, 2019).

또래와의 지지적인 관계는 부모의 SES와도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가족 스트레스 이론(Conger, Conger & Martin, 2010)에 의하면, 낮은 SES의 부모들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비일관되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소통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로 인하여 낮은 SES 가정에 속한 청소년들은 대인관계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낮은 SES 가정에 속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부정적인 행동 또한 증가하게 되고 이는 낮은 관계 만족도로 이어지게 된다(Maisel & Karney, 2012). 관련하여, 자본축적 패러다임(Capital Accumulation Paradigm; Santor & Zuroff, 1998; Stansfeld, Head & Marmot, 1998)은 대인관계 기술을 생존을 위한 주요한 자원 중의 하나로 보았고, 특히 낮은 SES의 사람들이 높은 SES를 가진 사람들보다 인적자원형성에 초점을 둘 때 사회적 연결망을 넓히고 학업적 성취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행 이론 및 연구는 SES가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 부모의 SES 수준에 따라 또래 관계 소통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SES가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또래의사소통이 중요한 기제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선행연구들은 SES와 정서문제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SES 수준에 따라 청소년이 가지는 심리적 자원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의 차이가 정신장애 취약성과 관련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로 인하여 청소년 집단에 미치는 SES의 영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SES와 정서문제에 관해 살펴본 연구가 극히 소수이며, 종단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SES가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의 또래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심리적 자원으로서 매개 변인으로 기능하는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SES, 또래의사소통, 정서문제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종단적으로 검증하고자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각 변인의 초기치와 변화량을 추정함으로써, SES, 또래의사소통, 정서문제가 시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SES의 변화가 또래의사소통 및 정서문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SES, 또래의사소통,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는 각각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가?
- 연구문제 2. SES는 또래의사소통과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의 초기치와 변화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또래의사소통의 초기치와 변화량은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의 초기치와 변화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방 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KCYPS 2010)의 중1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중1 패널은 2010년에 중학생 1학년이었던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에 의해 지역별, 학교당, 학급당 목표표본을 할당한 후 1년마다 반복적으로 조사한 자료로서 현재 2016년까지 측정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요변인이 모두 측정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세 시점의 자료에 모두 응답한 1654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의 성별은 남자 812명(49.1%), 여자 841명(50.9%)이었으며, 분석 대상의 학교 지역으로는 경기도 215명, 서울특별시 141명, 경상북도 130명, 대구광역시 127명, 경상남도 121명, 충청북도 109명, 부산광역시 102명, 인천광역시 99명, 전라남도 90명, 전라북도 88명, 대전광역시 83명, 울산광역시 82명, 충청남도 80명, 제주도 69명, 광주광역시 67명, 강원도 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살펴보기 위해서, Edwards와 하영희(2005)의 방식을 따라 부모의 학력과 수입을 사용하여 부모의 SES를 산출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중졸 이하(1점)~대학원 졸(5점)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수입은 최영은 외(2013)의 산출 방식을 참고하여, 연 소득 1000만원 미만(1점)~9000만원 이상(6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학력과 가구 수입의 점수를 합산하여 부모의 SES요인 점수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SES지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학력으로는 부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6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 620명, 전문대 졸업 152명, 대

학원 졸업 72명, 중학교 졸업 이하 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844명, 대학교 졸업 484명, 전문대 졸업 164명, 중학교 졸업 이하 51명, 대학원 졸업 26명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연수입은 연도별로 4764.78만원, 4875.07만원, 4968.4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또래의사소통

본 연구에서는 KCYPS 2010 설문지 중 또래의사소통에 해당하는 3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관해 이야기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4점 척도(1점=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 맺는 소통의 질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연도별로 각각 .82, .80,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서문제

KCYPS 2010 설문지 중 정서문제를 측정하는 36문항을 사용하였다. 정서문제는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4점 척도(1점=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정서문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chenbach와 Rescorla(2001)에 의거하여 정서문제를 내재적 정서문제와 외현적 정서문제로 구분하였으며, 주의집중,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을 묻는 문항들을 합산하여 내재적 정서문제로,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합산하여 외현적 정서문제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재적 정서문제의 내적 합치도는 연도별로 각각 .93, .91, .93, 외현적 정서문제의 내적합치도는 .81, .80,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24와 Mplus 8.3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SES, 아동의 또래 의사소통 및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각각의 변인의 변화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각 변인에 대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의 변화모형을 추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변인 간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내재적 정서문제와 외현적 정서문제가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별도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실시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엄격하고 표본크기에 민감한 χ^2 대신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를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홍세희(2000)는 RMSEA가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일 때 괜찮은 적합도, .10 이하일 때 보통 적합도,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보았고, Hu와 Bentler(1999)는 CFI와 TLI가 .95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권고하였다.

III. 결 과

1. 상관분석

잠재성장모형검증에 앞서 본 연구의 주요변인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표 1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1년 차의 SES와 세 시기의 또래의사소통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년 차의 SES와 세 시기의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 세 시기의 또래의사소통과 세 시기의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는 모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의 정규 분포성 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1).

표 1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 (N=1654)

	1	2	3	4	5	6	7	8	9	10
1. SES1	1									
2. 의사소통1	.124**	1								
3. 의사소통2	.098**	.282**	1							
4. 의사소통3	.023	.272**	.383**	1						
5. 내재정서문제1	-.093**	-.294**	-.175**	-.202**	1					
6. 내재정서문제2	-.088**	-.223**	-.325**	-.248**	.467**	1				
7. 내재정서문제3	-.098**	-.174**	-.224**	-.289**	.351**	.537**	1			
8. 외현정서문제1	-.075**	-.136**	-.116**	-.105**	.652**	.296**	.214**	1		
9. 외현정서문제2	-.035	-.132**	-.227**	-.171**	.303**	.602**	.295**	.375**	1	
10. 외현정서문제3	-.048	-.071**	-.156**	-.219**	.228**	.344**	.661**	.292**	.417**	1
M	8.885	3.064	3.133	3.175	2.198	2.050	1.973	2.201	1.910	1.792
SD	2.920	.534	.474	.473	.493	.423	.454	.600	.530	.517
왜도	-.023	-.130	.253	.065	-.085	-.165	-.059	.026	.109	.312
첨도	-.625	1.083	.692	.868	-.076	-.361	-.303	-.088	-.430	-.269

** $p < .01$.

2. 사회경제적 지위, 또래의사소통, 정서문제의 개별 변화모형 검증

부모의 SES와 청소년의 또래의사소통,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의 관련성에 대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각 변인이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에 대한 일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차함수모형은 측정 시점이 네 시점 이상일 경우 추정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무성장모형과 선형성장모형까지 추정하였다.

주요변인의 변화모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변인에 대한 무변화모형과 선형성장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및 모형의 초기치 및 변화율의 특성은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SES의 경우, 무변화모형($\chi^2=722.926$, $df=4$, TLI=.890, CFI=.854, RMSEA=.330)과 선형변화모형($\chi^2=169.173$, $df=1$, TLI=.897, CFI=.966, RMSEA=.319)이 모두 적합하지 않게 나타나 시간독립변수로 판단하고 이후의 모형분석에서 1년차의 SES를

독립변인으로 연구모형에 사용하였다.

또래의사소통의 경우에는 무변화모형($\chi^2=61.712$, $df=4$, $TLI=.901$, $CFI=.868$, $RMSEA=.093$)은 보통의 적합도로 나타난 반면, 선형변화모형($\chi^2=1.475$, $df=1$, $TLI=.997$, $CFI=.999$, $RMSEA=.017$)은 좋은 적합도가 나타났다. 또한 또래의사소통의 초기치의 평균과 분산, 변화율의 평균은 유의미하였으나 변화율의 분산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율에서는 개인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정서문제의 경우에 무변화모형($\chi^2=310.630$, $df=4$, $TLI=.762$, $CFI=.683$, $RMSEA=.215$)은 좋지 않은 적합도가 나타난 반면, 선형변화모형($\chi^2=5.224$, $df=1$, $TLI=.987$, $CFI=.996$, $RMSEA=.051$)은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외현적 정서문제의 경우에도 무변화모형($\chi^2=588.595$, $df=4$, $TLI=.254$, $CFI=.006$, $RMSEA=.297$)은 좋지 않은 적합도가 나타난 반면, 선형변화모형($\chi^2=1.781$, $df=1$, $TLI=.996$, $CFI=.999$, $RMSEA=.022$)은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내재적 정서문제와 외현적 정서문제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함을 알 수 있으므로 선형성장모형을 채택하였고,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미하였으므로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 모두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이 각각 -.586과 -.665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정서문제의 초기값이 높은 사람은 정서문제 감소의 폭이 큰 것으로 해석하였다.

표 2
각 변인별 모델 적합도 비교

		χ^2	df	TLI	CFI	RMSEA
SES	무변화모형	722.926	4	.890	.854	.330
	선형성장모형	169.173	1	.897	.966	.319
또래 의사소통	무변화모형	61.712	4	.901	.868	.093
	선형성장모형	1.475	1	.997	.999	.017
내재적 정서문제	무변화모형	310.630	4	.762	.683	.215
	선형성장모형	5.224	1	.987	.996	.051
외현적 정서문제	무변화모형	588.595	4	.254	.006	.297
	선형성장모형	1.781	1	.996	.999	.022

표 3

각 변인별 모형의 초기치, 변화율, 공분산분석 결과

		초기치		변화율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초기율-변화량
SES	무변화모형	8.976***	7.865***			
	선형성장모형	9.322***	18.250***	.064***	.840***	-.838***
또래 의사소통	무변화모형	3.131***	.076***			
	선형성장모형	3.061***	.080**	.027***	.002	-.219
내재적 정서문제	무변화모형	2.058***	.097***			
	선형성장모형	2.201***	.154***	-.054***	.007***	-.586***
외현적 정서문제	무변화모형	1.927***	.103***			
	선형성장모형	2.203***	.206***	-.101***	.009***	-.665***

*** $p < .001$, ** $p < .01$.

3. 사회경제적 지위, 또래의사소통, 내재적 정서문제에 대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변인별 모형검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치의 SES가 또래의사소통을 통해 내재적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다변량 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와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4,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73.242	11	.935	.966	.058(.046-.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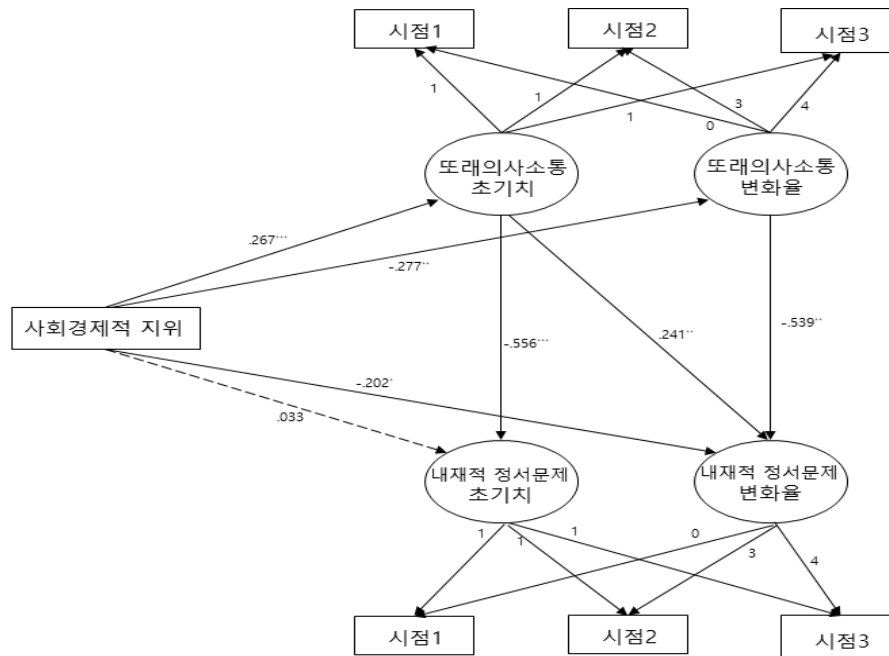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β	B	$S.E.$	t
SES1 → 또래의사소통 초기치	.267	.024	.004	5.661***
SES1 → 또래의사소통 변화율	-.277	-.004	.001	-3.389**
SES1 → 내재문제 초기치	.033	.004	.005	.859
SES1 → 내재문제 변화율	-.202	-.005	.002	-2.465*
또래의사소통 초기치 → 내재문제 초기치	-.556	-.810	.079	-10.274***
또래의사소통 초기치 → 내재문제 변화율	.241	.071	.023	3.096**
또래의사소통 변화율 → 내재문제 변화율	-.539	-.930	.272	-3.421**

*** $p < .001$, ** $p < .01$, * $p < .05$.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는 표 4와 같이 $\chi^2=73.242$, $df=11$, $TLI=.935$, $CFI=.966$, $RMSEA=.058$ 이었다. $RMSEA$ 의 계수가 좋은 적합도의 기준인 .05를 넘었으나 90% 신뢰구간에서 .046-.072인 것으로 나타났고, 랜쉴은 적합도 기준인 .08 이하이므로 이 모형은 랜쉴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들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각각의 경로를 살펴보면, 1년차의 SES는 또래의사소통 초기치($\beta=.267$,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의사소통 초기치는 내재적 정서문제 초기치($\beta=-.556$,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에 SES수준이 높은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은 또래의사소통 수준이 높으며 이는 낮은 내재적 정서문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1년차의 SES와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의 계수는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beta=-.277$, $p<.01$), 이는 초기의 SES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의 폭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또래의사소통 변화율과 내재적 정서문제의 변화율의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539$, $p<.01$), 이는 또래의사소통 증가폭이 큰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내재적 정서문제가 더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1.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4. 사회경제적 지위, 또래의사소통, 외현적 정서문제에 대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초기치의 SES가 또래의사소통을 통해 외현적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 2와 같이 설정하고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듯이, $\chi^2=30.038$, $df=11$, TLI=.970, CFI=.984, RMSEA=.032이었다. RMSEA의 계수가 좋은 적합도의 기준인 .05 미만이며 다른 적합도 지표에서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모형은 좋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6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χ^2	<i>df</i>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30.038	11	.970	.984	.032(.019-.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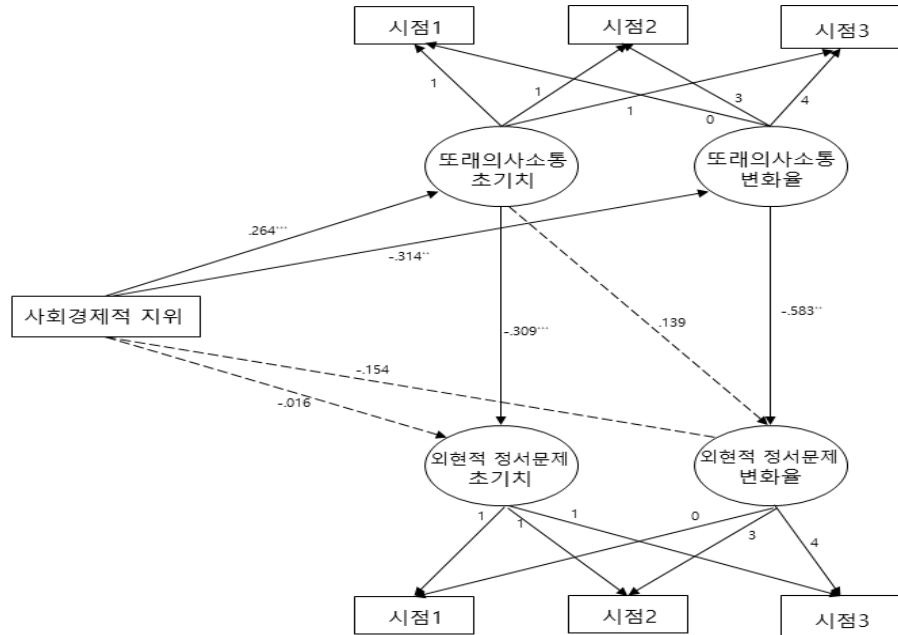
표 7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β	<i>B</i>	<i>S.E.</i>	<i>t</i>
SES1 → 또래의사소통 초기치	.264	.024	.004	5.597***
SES1 → 또래의사소통 변화율	-.314	-.004	.001	-3.420**
SES1 → 외현문제 초기치	-.016	-.002	.006	-.425
SES1 → 외현문제 변화율	-.154	-.005	.003	-1.512
또래의사소통 초기치 → 외현문제 초기치	-.309	-.512	.083	-6.209***
또래의사소통 초기치 → 외현문제 변화율	.139	.048	.027	1.757
또래의사소통 변화율 → 외현문제 변화율	-.583	-1.324	.487	-2.718**

*** $p < .001$, ** $p < .01$.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들은 표 7에 제시되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1년차 시기 부모의 SES는 청소년의 또래의사소통 초기치($\beta = .264$, $p < .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의사소통 초기치는 외현적 정서문제 초기치($\beta = -.309$, $p < .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SES 수준이 높은 경우 또래 의사소통 수준이 긍정적이며, 초기에 또래의사소통이 높은 학생들이 외현적 정서문제를 덜 경험함을 의미한다. 한편, 1년차의 SES와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의 계수는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beta = -.314$, $p < .01$), 이는 초기의 SES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의 폭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또래의사소통 변화율과 외현적 정서문제의 변화율의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 = -.583$, $p < .01$), 이는 또래의사소통 증가의 폭이 큰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외현적 정서문제가 더 빨리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p < .001$, ** $p < .01$.

그림 2.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IV. 논 의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 시기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세 시점에 거친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SES, 또래의사소통,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특히, 사회원인이론에 기반하여 SES와 청소년의 내재적·외현적 정서 문제 사이에서 심리적 자원으로서 또래의사소통의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으로 변인 간의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변인 별 일변량 잠재성장모형과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의사소통의 경우, 청소년들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지나 대학교 1학년이 되는 4년의 기간 동안 또래와의 관계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선형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의 기간 동안 청소년의 또래 애착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 노보람, 박새롬, 이순형, 박혜준(2016)의 연구,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또래 관계의 질과 의사소통 기술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한 김진경, 유안진(2002)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장은애와 정현희(2019)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의 세 시점에서 또래 애착을 살펴보면, 이전 시기의 또래 애착은 이후 시기의 또래 애착을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초기 청소년 시기일수록 또래 관계 및 의사소통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고 초기 청소년 시기의 또래 관계 양상은 이후의 또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시기에 또래 관계를 증진하고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의 경우, 중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기치, 변화율의 평균 및 분산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정서문제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할 뿐 아니라 발달궤적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동 및 초기 청소년기에 내재화 문제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외현화 문제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은주, 2010; Galambos, Barker & Almeida, 2003; Gilliom & Shaw, 2004)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이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꺾의현, 정경미, 김은성(2016)은 후기 남자 청소년의 경우 내재화 문제에서 다양한 하위궤적이 존재한다고 제시하며, 2년 3개월의 기간 동안 평균 4.5개월 간격으로 남자 고등학생의 우울과 불안을 총 6회 측정하였다. 그 결과 낮음, 중간, 높음, 중간-변화 등의 네 개 하위 발달궤적이 나타났는데, 이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낮음 궤적의 경우, 1차에서 3차까지 우울 및 불안이 소폭 증가하다 3차를 기점으로 6차까지는 우울 및 불안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후기 남자청소년의 내재적 문제의 발달궤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시점과 관련하여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1차, 2차 시점인 중학교 3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3년은 다양한 변화양상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

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후기 청소년기에 발견되는 하위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SES와 또래의사소통 및 정서문제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하위발달궤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부모의 SES, 청소년의 또래의사소통,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에 대한 다변량 잠재성장분석 결과, 부모의 SES가 높을수록 초기의 또래의사소통이 긍정적이며, 이것이 낮은 수준의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의사소통이 빠르게 증가할수록 내현적·외현적 정서문제가 빨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viruusu et al.(2013)이 SES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심리적 자원의 매개역할을 제안한 것과 일치하게, 부모의 SES와 청소년의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의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주요한 심리 자원으로서 정서문제 향상을 위한 주요 기제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높은 SES는 낮은 또래의사소통 변화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또래의사소통의 일변량 잠재성장모형에서 선형모델의 부적 공분산 결과와 관련되어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에 또래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이후에 또래의사소통 성장이 느리며, 부모의 SES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천장효과로 설명해볼 수 있다.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또래 의사소통의 질이 좋았던 청소년들은 또래의사소통 수준이 향상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래의사소통 수준이 비교적 천천히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종단연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Bray, Adams, Getz & McQueen, 2003), 부모의 SES가 청소년의 또래의사소통 변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다변량 잠재성장분석 결과에서 초기의 또래의사소통과 정서문제의 변화율의 방향이 정적이었다는 것 또한 예상과 다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문제의 특성과 관련되어 설명해볼 수 있다. Kiviruusu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의 심리적 자원으로 자존감, 삶의 의미, 통제 위치 등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김형모, 이숙진, 서해정, 최은정, 김은정, 문순희(2007)는 부모의 훈육능력이 외현화 문제 감소와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외현화 문제에는 또래의사소통 외에 부모의 훈육이나 규범 설정,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리지도 등의 다른 변인이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또래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는 자존감, 삶의 의미, 정체성, 통제조건 등의 개인 내적 변인들과 또래 관계, 가족 분위기, 부모의 양육 태도 등의 개인 외적 조건들이 모두 상호작용하여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SES와 정서 문제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종단연구를 사용하여 각 변인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SES와 또래의사소통, 정서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을 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인과적으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SES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의 연수입과 학력을 사용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가 수입과 학력을 SES 산정을 위한 주된 지표로 삼고 있으나(변상우, 2018; 정은의, 노안영, 2007; 최영은 외, 2013), SES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관해 연구자 간 합의가 부족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SES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Liu et al., 2004), SES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측정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객관적인 SES 지표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신이 어느 사회계층에 속하는지 지각하는 정도, 즉 주관적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과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한 심리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진현, 2018; 이연경, 이승중, 2017; Bradshaw, Kent, Henderson & Setar, 2017; Cundiff & Matthews, 2017; Sańchez, Liu, Leather, Joyce & Vilain, 2011). 따라서 향후 연구는 SES와 관련하여 보다 다각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심리적 자원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SES를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통제 변인이 아닌 주요변인으로 삼아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Pope와 Arthur(2009)는 캐나다 사회에서 낮은 SES는 가난, 고정관념 및 편견뿐만 아니라 가족 역동, 신체적 건강, 스트레스 수준, 대처방식, 부모의 훈육방식, 심리적 어려움 등 광대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며 SES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Liu, Soleck, Hopps, Dunston and Pickett (2004) 또한 사회계층 및 SES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를 강조하며 특히 다양한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SES와 정서문제의 관계에서 또래

의사소통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SES에 관한 기존 연구를 확장했다고 할 수 있다. 서영석(2010)은 매개 변인은 상담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변화의 주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낮은 SES에 속해있는 청소년들에게 또래 의사소통의 질을 증진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을 제공함으로써 낮은 SES가 정서문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현, 오경자 (2009). 교사가 지각한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 경로. **아동학회지**, 30(4), 69-85.
- 강지현, 오경자 (2011).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연령,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1-21.
- 곽의현, 정경미, 김은성 (2016). 후기 남자 청소년의 우울·불안 발달궤적과 사회적 지지.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1), 243-264. doi:10.15842/kjcp.2016.35.1.012
- 김근영, 곽금주 (2015).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청소년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 청소년학 연구논문 개관을 통해 본 과제와 제언. **청소년학연구**, 22(11), 269-297.
- 김영혜, 안현의 (2014). 대학생의 부모-자녀 유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진로결정관계에서 성취압력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657-682.
- 김진경, 유안진 (2002).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의사소통기술과 또래관계 질. **아동학회지**, 23(2), 121-135.
- 김진현 (2018). 근로자의 주관적 사회계층인식 및 사회계층 이동성과 주관적 건강 및 우울상태와의 관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의 비교.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5(5), 57-68. doi:10.14367/kjhep.2018.35.5.57
- 김형모, 이숙진, 서해정, 최은정, 김은정, 문순희 (2007).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8(1), 53-77.
- 노보람, 박새롬, 이순형, 박혜준 (2016). 청소년의 또래애착 발달 궤적과 예측요인: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1), 149-177. doi:10.14816/sky.2016.27.1.149
- 박영신, 김의철 (2009).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 한국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95-132.
- 박원주, 이기학 (2008). 탄력성에 따른 성격유형별 학교생활적응,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75-695.
- 변상우 (2018). 사회계층에 대한 재조명: 심리학에서 개념화 및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1), 101-130. doi:10.20406/kjcs.2018.2.24.1.101

- 봉미미, 김혜연, 신지연, 이수현, 이화숙 (2008).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319-348.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설경옥, 백상은, 이선아, 박지은 (2014). 빈곤 청소년의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부모 및 친구 관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2), 75-98.
- 송현주, 황순택 (2017).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내재화외현화문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2), 33-58. doi:10.21509/KJYS.2017.02.24.2.33
- 이귀숙, 김현숙 (2016). 모의 정서조절곤란이 청소년 자녀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학연구**, 23(12), 245-276. doi:10.21509/KJYS.2016.12.23.12.245
- 이봉주, 민원홍 (2015). 아동,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청소년학연구**, 22(8), 335-361.
- 이연경, 이승중 (2017).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5(1), 1-39.
- 이은주 (2010).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종단적 공동발달: 잠재성장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1(4), 171-200.
- 이지연, 박금주 (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3), 151-165.
- 임진영 (2001). 아동의 지능발달과 가정환경 간의 교호적 상호작용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4(2), 43-64.
- 장유경, 성지현 (2011). 영아, 어머니,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24개월 영아의 표현어휘 습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137-154.
- 장은애, 정현희 (2019).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학교 유대감의 종단적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0(1), 313-340. doi:10.14816/sky.2019.30.1.313
- 정소희 (2016).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초, 중, 고 발달단계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3(6), 119-144.
- 정은의, 노안영 (2007).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혼여성 행복간 관계: 개별성-관계성의

- 조절효과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59-82.
- 좌현숙 (2018).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행동: 성차와 연령차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5(2), 219-245. doi:10.21509/KJYS.2018.02.25.2.219
- 최영은, 최미혜, 남민지 (2013).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령 전기 아동의 실행 기능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4), 107-123.
- 최은경, 오수성 (2006). 보육시설 청소년의 애착유형에 따른 행동문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1), 129-145.
- 최태산, 김자경 (2015). 모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8), 363-384.
- 하문선 (2017).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 종단적 변화와 가정환경, 정서행동문제 간 관계. **청소년학연구**, 24(3), 25-59. doi:10.21509/KJYS.2017.03.24.3.25
-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청소년기 우울 및 불안증상 공존집단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27-144.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243-264.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1). *Manual for the ASEBA school-age forms and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Bradshaw, M., Kent, B. V., Henderson, M., & Setar, A. C. (2017). Subjective social status, life course, SES, and BMI in young adulthood. *Health Psychology*, 36(7), 682-694. doi:10.1037/hea0000487
- Bray, J. H., Adams, G. J., Getz, J. G., & McQueen, A. (2003). Individuation, peers, and adolescent alcohol use: A latent growth 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3), 553-564. doi:10.1037/0022-006X.71.3.553
- Bullock, H. E., Kent, A. H., Griffin, K. M., & Toolis, E. E. (2018). Translating psychological research on social class and socioeconomic status. *Translational Issues in Psychological Science*, 4(2), 119-121. doi:10.1037/tps0000160

- Chen, J., & Kennedy, C. (2004). Family functioning, parenting style, and Chinese children's weight status. *Journal of Family Nursing*, 10, 262-279. doi:10.1177/1074840704264021
- Conger, R. D., Conger, K. J., & Martin, M. J. (2010). Socioeconomic status, family process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3), 685-704. doi:10.1111/j.1741-3737.2010.00725.x
- Conger, R. D., & Elder, G. H., Jr. (1994). *Families in troubled times*. New York: Aldine.
- Costello, E. J., Compton, S. N., Keeler, G., & Angold, A. (2003). Relationships between poverty and psychopathology: A natural experiment.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90, 2023-2029. doi:10.1001/jama.290.15.2023
- Cundiff, J. M., & Matthews, K. A. (2017). Is subjective social class a unique correlate of physical health? A meta-analysis. *Health Psychology*, 36(12), 1109-1125. doi:10.1037/hea0000534
- Dohrenwend, B. P., Levav, I., Shrout, P. E., Schwartz, S., Naveh, G., Link, B. G., et al. (1992). Socioeconomic status and psychiatric disorders: The causation-selection issue. *Science*, 255, 946-952. doi:10.1126/science.1546291
- Edwards, C. P., & 하영희 (2005). 부모와 형제에 대한 초기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애착, 사회경제적 지위 및 조망수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43-57.
- Falconnier, L. (2009). Socioeconomic status in the treatment of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9(2), 148-158. doi:10.1037/a0015469
- Falconnier, L., & Elkin, I. (2008). Addressing economic stress in the treatment of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8(1), 37-46. doi:10.1037/0002-9432.78.1.37
- Fanti, K. A., & Henrich, C. C. (2010). Trajectories of pure and co-occurring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age 2 to age 12: Findings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Study of Early Child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46(5), 1159-1175. doi:10.1037/a0020659

- Galambos, N. L., Barker, E. T., & Almeida, D. M. (2003). Parents do matter: Trajectories of change i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2), 578-594. doi:10.1111/1467-8624.7402017
- Gallo, L. C., Bogard, L. M., Vranceanu, A., & Matthews, K. A. (2005). Socioeconomic status, resources, psychological experiences, and emotional responses: A test of the reserve capacit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2), 386-399. doi:10.1037/0022-3514.88.2.386
- Gallo, L. C., & Matthews, K. A. (2003). Understanding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physical health: Do negative emotions play a role?. *Psychological Bulletin, 129*, 10-51. doi:10.1037/0033-2909.129.1.10
- Gearin, B., Fien, H., & Nelson, N. J. (2018). Mind wandering: A potentially generative idea for understanding the socioeconomic status academic achievement gap. *Translational Issues in Psychological Sciences, 4*(2), 138-152. doi:10.1037/tps0000156
- Gilliom, M., & Shaw, D. S. (2004). Codevelopment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2), 313-333. doi:10.1017/S0954579404044530
- Greitemeyer, T., & Sagioglou, C. (2018). Does low (vs. high)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increase both prosociality and aggression?. *Social Psychology, 49*(2), 76-87. doi:10.1027/1864-9335/a000331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doi:10.1080/10705519909540118
- Kao, K., Nayak, S., & Doan, S. N. (2018). Relations between parent EF and child EF: The role of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ing on executive functioning in early childhood. *Translational Issues in Psychological Science, 4*(2), 122-137. doi:10.1037/tps0000154
- Kiviruusu, O., Huurre, T., Haukka, A., & Aro, H. (2013). Changes in

- psychological resources moderates the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in distress symptoms: A 10 year follow-up among young adults. *Health Psychology*, 32(6), 627-636. doi:10.1037/a0029291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 Liu, W. M., Ali, S. R., Soleck, G., Hopps, J., Dunston, K., & Pickett Jr. T. (2004). Using social clas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3), 3-18. doi:10.1037/0022-0167.51.1.3
- Liu, W. M., Soleck, G., Hopps, J. Dunston, K., & Pickett, Jr. T. (2004). A new framework to understand social class in counseling: The social class worldview model and modern classism theory.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2(2), 95-122. doi:10.1002/j.2161-1912.2004.tb00364.x
- Maisel, N. C., & Karney, B. R. (2012). Socioeconomic status moderates associations among stressful events, mental health,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4), 654-660. doi:10.1037/a0028901
- Miech, R. A., Caspi, A., Moffitt, T. E., Wright, B. R. E., & Silva, P. A. (1999). Low socioeconomic status and mental disorders: A longitudinal study of selection and causation during young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4, 1096-1131. doi:10.1086/210137
- Overbeek, G. J., Vollebergh, W. A. M., Meeus, W. H. J., Luijpers, E. T. H., & Engels, R. C. M. E. (2001). Course, co-occurrence and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emotional disturbance and delinquency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A six-year-three wave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401-426. doi:10.1023/A:1010441131941
- Piff, P. K., & Moskowitz, J. P. (2018). Wealth, poverty, and happiness: Social class is differentially associated with positive emotions. *Emotions*, 18(6), 902-905. doi:10.1037/emo000038

- Pope, J. F., & Arthur, N. (2009). Socioeconomic status and class: A challenge for the practice of psychology in Canada. *Canadian Psychology, 50*(2), 55-65. doi:10.1037/a0014222
- Santor, D. A., & Zuroff, D. C. (1998). Controlling shared resources: Effects of dependency, self-criticism, and threats to self-wor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 237-252. doi:10.1016/S0191-8869(97)00154-2
- Sánchez, F. J., Liu, W. M., Leather, L., Joyce, G., & Vilain, E. (2011).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social class and upward mobility among African American men in graduate school.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2*(4), 368-382. doi:10.1037/a0024057
- Stansfeld, S. A., Head, J., & Marmot, M. G. (1998). Explaining social class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well-being.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3*, 1-9. doi:10.1007/s001270050014
- Twenge, J. M., & Nolen-Heksema, S. (2002). Age, gender,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birth cohort differences on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4), 578-58. doi:10.1037/0021-843x.111.4.578
- von Soest, T., Wagner, J., Hansen, T., & Gerstorf, D. (2017). Self-esteem across the second half of life: The role of socioeconomic status, physical health, social relationships, and personality fac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4*(6), 945-958. doi:10.1037/pspp0000123
- Wadsworth, M. E., & Achenbach, T. M. (2005). Explaining the link between low socioeconomic status and psychopathology: Testing two mechanisms of the social caus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6), 1146-1153. doi:10.1037/0022-006X.73.6.1146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adolescents' peer communication and emotional disturbance*

Choi, Gahee**

This study examined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f peer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adolescents' emotional disturbance, using latent growth modelling. Data harvested from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KCYP 2010) was used, and 3 time point data over 5 years from a total of 1654 participants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did not change across the 3 time points, whereas adolescents' peer communication and emotional disturbance levels exhibited changes over time. Additionally, parents' high socioeconomic status was associated with positive peer communication, and this was followed by low levels of internal and external emotional disturbance. This longitudinal study not only elucidated the impact of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on the levels of adolescents' emotional disturbance, but also provided suggestions to prevent the negative impact of low socioeconomic status on emotional disturbance by enhancing peer communication amongst adolescents.

Key Words: adolescents, KCYPS 2010, SES, peer communication, emotional disturbance

투고일: 2019. 10. 31, 심사일: 2020. 2. 10, 심사완료일: 2020. 2. 24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isa Research Grant of Keimyung University in 2018

** Assistant Professor, Psychology Department, Keimyu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choigh@kmu.ac.kr